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9년 2월 23일

교사 : 김은아

목표 : 1.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3.1운동에 대해 알 수 있다.

2. 흥부전의 내용에 대해 알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3. 영한, 한영 번역을 할 수 있다.
4. 자주 사용되는 한자에 대해 알 수 있다.
5. 관용어의 쓰임을 알 수 있다.
6.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대한 읽을 자료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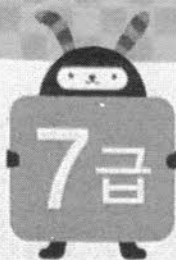
교재 : 브리태니커 사전, 네이버 초등 백과사전, 7급 한자교재,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교 시	수 업 내 용
1교시 9:30-10:15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3.1운동에 대해 공부한다.
2교시 10:15-11:00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3.1운동에 대해 공부한다.
점심 11:00-11:20	
3교시 11:20-12:00	흥부전의 내용에 대해 알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4교시 12:00-12:40	영한, 한영 번역 연습
숙제	1.한자 2.관용어 3. 읽기자료

오늘 배운 내용과 숙제로 공부해 온 내용을 다음주에 꼭지시험 봅니다.

다음 주에 번역대회가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격주로 줌바수업이 있습니다. 운동화 운동하기 편한 옷, 물병을 준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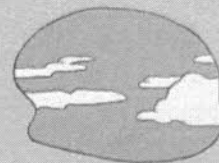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天

ㄹ → ㅈ → 天



사람의 머리 꼭대기의 위인 하늘을 뜻합니다.

훈 하늘 음 천

대부수(총 4획)

天 天 天 天

필순에 따라 빈칸에 ㅈ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天	天	天	天	天	天	天
하늘 천	하늘 천	하늘 천	하늘 천	하늘 천	하늘 천	하늘 천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天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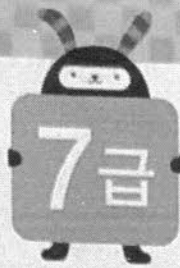
• 天地() : 하늘과 땅.

(地 : 땅 지)

• 天國() : 하느님이나 신불이 있다는 이상 세계.

(國 : 나라 국)

天의 상대 반의어 - 地(땅 지)



빨리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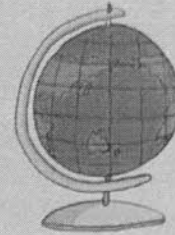
월 일

확인

이름

地

土 → 土 → 地



뱀(也)이 땅(土)에서 꿈틀거린다는 데서 땅을 뜻합니다.

훈 땅 음 지

土부수(총 6획)

地地地地地地地

필순에 따라 빈칸에 地를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地	地	地	地	地	地	地
땅 지	땅 지	땅 지	땅 지	땅 지	땅 지	땅 지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地가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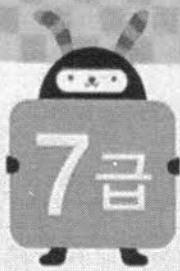
· 土地() :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

(土 : 흙 토)

· 地名() : 마을이나 지방, 산천, 지역 따위의 이름.

(名 : 이름 명)

地의 상대 반의어 - 天(하늘 천)



7급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自

𠂇 → 𠂇 → 自



코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손가락으로 코를 가리킨다는 데서 자기, 스스로를 뜻합니다.

훈 스스로 음자

自부수(총 6획)

自 自 自 自 自 自



필순에 따라 빈칸에 自를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自	自	自	自	自	自	自
스스로 자	스스로 자	스스로 자	스스로 자	스스로 자	스스로 자	스스로 자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自가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自動() : 기계나 설비 따위가 스스로 작동함.

(動 : 움직일 동)

• 自國() : 자기 나라.

(國 : 나라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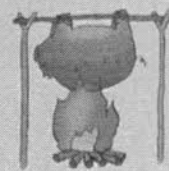
일 일

확인

이름

然

然 → 然 → 然



한글 10월 11일

ㄴ(火)부수(총 12획)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然

然

然

然

然

然

然

그런 연

그런데

그렇지 않

그런데 여

영역 73

그럼 연

그런 연

· 天然 () :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

(天:하늘 천)

• 自然 () :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이루어진 상태.

(自: 스스로 자)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川

川 → ㄴㄴ → 川

하천이 구불구불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냇물을 뜻합니다.



훈내 음천

《부수(총 3획)》

川 川 川



필순에 따라 빈칸에 川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川	川	川	川	川	川	川
내 천	내 천	내 천	내 천	내 천	내 천	내 천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川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山川 () : 산과 냇

(山 : 메 산)

· 大川 () : 큰 냇

(大 : 큰 대)

川의 상대 반의어-山(메 산)



확인 학습 1

호린 한자를 필순에 맞게 쓰고, 빈칸에 훈(뜻)과 음(소리)을 쓰세요.

1 눈이 온 天地를 뒤엎었습니다.

훈 음

2 우리나라 地名 중에는 고유한 우리말로 된 곳이 많습니다.

훈 음

3 모든 나라들은 自國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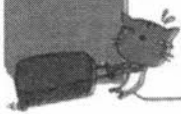
훈 음

4 우리 모두 自然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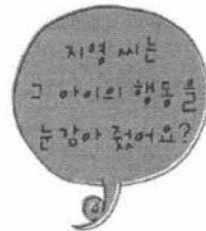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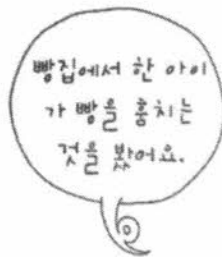
훈 음

5 우리 마을 앞에는 大川이 흐르고 있습니다.

훈 음



대화



- 에릭: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지영: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생각나는 아이가 있어요.
 에릭: 누구예요? 혹시 첫사랑이에요?
 지영: 음,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엄마랑 같이 케이크를 사러 빵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에릭: 아, 빵집에서 만난 사람이군요.
 지영: 아뇨, 그때 그 빵집에서 한 아이가 빵을 훔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주인아저씨도 보셨는데 그냥 못 본 척하셨어요.
 에릭: 아저씨가 그 아이의 행동을 눈감아 줬어요?
 지영: 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줬어요.
 에릭: 나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선물까지 줄 수 있었을까요?
 지영: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불쌍한 아이였어요. 지금쯤 그 아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 눈(을) 감아 주다: 남의 잘못을 못 본 척하다

활용예문

- ▶ 한 번만 눈감아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 선생님께서는 철수가 수업시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셨지만 눈감아 주셨다.
- ▶ 가: 면허증 좀 보여 주십시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셨습니다.
 나: 죄송합니다. 깜박 잊어버렸어요. 한 번만 눈감아 주세요.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첫사랑 | <input type="checkbox"/> 훔치다 | <input type="checkbox"/> 감다 | <input type="checkbox"/> 불쌍하다 | <input type="checkbox"/> 조심하다 | <input type="checkbox"/> 문자 메시지 |
| <input type="checkbox"/> 면허증 | <input type="checkbox"/> 안전벨트 | <input type="checkbox"/> 매다 | <input type="checkbox"/> 깜박 | <input type="checkbox"/> -(으)ㄴ/는 척하다 | |



함께해요



소설 '장발장'에 대한 글을 읽고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벌? 용서?



'장발장'은 빅토르 위고가 쓴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다. '장발장'의 원래 제목은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인 장발장이 가난과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 장발장은 감옥에서 나오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빵을 훔치는 장발장의 행동을 사람들이 눈감아 주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 까요?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의 일을 눈감아 준 적이 있어요?

한 걸음 더

▶ 눈(을) 감다(ㄴ)

①죽다 ②남의 잘못을 모르는 척 하다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가 그의 고향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 눈(을) 딱 감다(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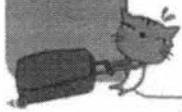
더 이상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다

돈도 얼마 없는데 눈 딱 감고 컴퓨터를 사 버렸어요.

▶ 감다

• 눈을 감고 5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 삼푸보다 천연 비누로 머리를 감는 것이 좋대요.



대화



민 수: 어머니, 제 책상 위에 있던 종이 못 보셨어요?

어머니: 아니, 난 못 봤는데 다시 한 번 잘 찾아봐.

민 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내일까지 교수님께 제출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정말 곤란해요. 어떡하지요?

어머니: 분명히 책상 위에 두었어? 서랍 안이나 가방 안에 넣어 두었는지 확인해 봐.

민 수: 여기저기 찾아 봐도 없어요. 눈에 불을 켜고 준비한 건데 다시 쓰려고 해도 지금은 시간도 없고 자료도 없어요.

어머니: 근데 민수야! 혹시 저 휴지통에 들어 있는 건 뭐니? 네가 찾고 있는 종이 아니니?

민 수: 네? 이게 왜 여기에 들어 있지요? 하하하. 어머니, 찾았어요!

어머니: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 눈에 불을 켜다: ① 어떤 일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 ② 화가 나서 눈을 크게 뜨다

활용예문

▶ 승우는 이번 시험에서 꼭 일등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공부했다.

▶ 아버지는 거짓말을 한 동생을 눈에 불을 켜고 야단치셨다.

▶ 가: 요즘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벌고 있다고 들었어.

나: 응,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배낭여행을 가려고.

새 어휘와 문형

☐ 켜다

☐ 제출하다

☐ 분명히

☐ 서랍

☐ 확인하다

☐ 자료

☐ 휴지통

☐ 정신(이) 없다

☐ 야단치다

☐ -아/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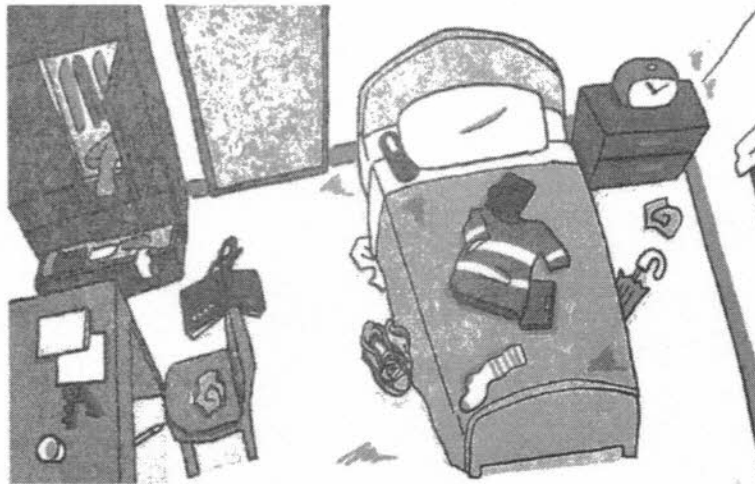


함께해요



민수는 아래의 물건들을 오랫동안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민수의 물건들을 눈에 붙을
고 찾아 주세요.

잃어버린 물건 : 시계, 우산, 휴대폰, 수첩, 지갑, 안경, 열쇠, 볼펜, 운동화



여러분은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서 눈에 붙을 켜고 찾았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물건이 있
어요?



여러분은 눈에 붙을 켜고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한 걸음 더

▶ 눈에(서) 붙이 나다(ㄴ)

몹시 화가 나다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와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눈에서 불
이 났지만 참았다.

▶ 눈(을) 돌리다(ㄴ)

관심을 옮기다

승우가 외국어 공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 켜다

• 교실이 너무 추운 것 같지 않아요? 난로 좀 켜시다.

• 저는 피아노는 칠 수 있는데 바이올린은 켜 줄 몰라요.

25_ 눈(을) 감아 주다 26_ 눈에 불을 켜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눈감아 주다 눈 딱 감다 눈에 불을 켜다 눈에서 불이 나다

1 가: 노트북을 새로 샀어요?

나: 네, _____ 사 버렸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아요.

2 가: 밤 11시 이후에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다고 들었어요.

나: 그런데 기숙사 선생님께서 내가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_____.

3 가: 어머니, 이 약은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나: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야. _____고 어서 먹어.

4 가: 지금 _____ 뭘 찾아요?

나: 제 휴대폰요. 분명히 책상 위에 두었는데 없어졌어요.

5 가: 우리 아빠는 동생이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_____.

나: 동생이 아직 어려서 그렇게 하셨을 거야.

6 가: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학생들을 보면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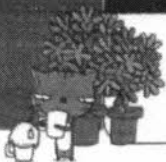
나: 나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집에서 공부해요.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이야기해요

눈(을) 감아 주다 / 눈에 불을 켜다



다음을 읽고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마이클: 민지 씨는 혹시 친구의 잘못을
눈감아 준 적이 있나요?

민 지: 글썄요. 오히려 친구가 내 일을
가끔 눈감아 줘요.

마이클: 그래요? 어떤 일인데요?

민 지: 도서관에 몰래 과자와 음료수
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요.

마이클: 하하하, 그런 일 말고요. 며칠 전에 전공 시험을 보다가 친한 친구가 부정행
위를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 지: 음, 그건 좀 어려운 문제네요. 전공 시험은 중요한 시험이라서 모두들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잖아요.

마이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친구가 장학금까지 받게 돼서 그냥 눈감아 주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 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민 지: _____

마이클: _____



위의 대화문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 1 민지 친구는 민지의 어떤 행동에 눈감아 줘요?
- 2 마이클의 친구는 어떤 잘못을 했어요?
- 3 여러분이 마이클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 어휘

☐ 몰래

☐ 전공

☐ 부정행위

1.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선조의 둘째 아들인 광해군이 왕위에 있을 때, 중국에서는 두 나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오래 되어 점차 힘을 잃어 가는 명나라였고, 다른 하나는 만주의 여진족이 새롭게 세운 후금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군사를 보내 주었으니 마땅히 조선도 우리 명나라를 도와야 하오.”

후금과의 싸움이 힘에 겨워지자 명나라는 오랜 친선(親善)¹⁾ 관계를 핑계로 조선에 군대를 보내 달라고 했어요.

“우리 금나라는 중국을 통일할 테니 조선은 간섭하지 마시오.”

한편 후금은 조선에게 명나라 편에 서지 말 것을 요구했어요.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서지 않았어요. 특히 명나라에서 군사를 보내 달라고 했을 때는 강홍립을 불러 이러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지요.

“장군은 명나라를 도와 싸우는 척하다가 금나라가 이길 것 같으면 금나라에 항복을 하시오. 뒷일은 내가 맡겠소.”

강홍립은 실제로 금나라와 싸우는 척하다가 금나라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금나라에 항복을 해 버렸어요. 이런 교묘한²⁾ 방법은 광해군이 가진 뛰어난 외교 능력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두 나라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나라의 이익을 얻기 위해 중립 외교를 하었어요.

그런데 1623년 광해군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전쟁을 막고 군사를 키우며 문화를 발전시키는 등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왕위를 지키기 위해 형제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서인들은 그것을 이유로 하여 반란을 일으켜 인조를 왕으로 세우고, 광해군은 강화도로 귀양을 보냈어요.



“오랑캐 나라인 후금과는 친하게 지낼 수 없소.”

권력을 잡은 서인들은 후금을 오랑캐 나라로 여기며 멀리했어요. 그러자 후금에서는 군사를 남쪽으로 돌려 조선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이 일어난 지 두 달 만에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야했어요. 1627년에 일어난 이 싸움을 '정묘호란'이라고 하지요. 그 뒤 조선과 후금이 '형제의 나라'가 된다는 약속을 맺고서야 싸움을 끝낼 수 있었어요.

잠깐 퀴즈

1627년 후금이 조선을 침략해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된 싸움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 : 정묘호란

2. 병자호란

오랑캐의 나라라고 얕잡아보다가 크게 당했으면서도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반란과 세력 다툼으로 나라 사정은 더욱 어지러웠어요. 그 사이 후금은 주변 세력을 끌어들이며 힘을 키우고, 나라 이름도 청나라로 바꿨어요. 청나라의 태종은 조선을 손에 넣으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어요.

“조선은 우리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와 가깝게 지내고, 청나라를 멀리하고 있다. 이런 조선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청 태종은 인조 14년(1636), 2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왔어요. 정묘호란에 이어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예요. 6일 만에 한양을 빼앗긴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 했어요. 그러나 그 길마저 막히자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했어요. 청나라 군대는 인조가 있는 남한산성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어진 인조는 끝까지 싸울 것인지, 아니면 항복을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했지요.





남한산성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산성과 함께 서울을 남북으로 지키는 산성 중 하나이다.

잠깐 퀴즈

1636년 청 태종이 조선을 침략해 온 싸움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 : 병자호란

3. 삼전도의 치욕

“조선의 왕은 대신(大臣)3)들을 이끌고 삼전도(지금의 송파 삼전 나루)에 나와 예를 갖추라.”

1637년, 항복을 결정한 인조는 공공 언 땅 위를 걸어 남한산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 뒤로 소현 세자를 비롯해 500여 명의 신하들이 줄줄이 따랐지요.

인조는 청나라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삼전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청나라 태종이 아홉 개의 계단이 놓여진 높은 단상 위에 앉아 있었어요. 단을 높게 쌓은 것은 태종을 우러러보라는 뜻이었지요. 청 태종 아래로 장수들이 칼을 차고 위세를 뽐내고 있었어요. 인조는 청 태종이 앉아 있는 단 앞으로 걸어가 절을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무릎 꿇고 엎드려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삼전도의 치욕(恥辱)4)이라고 하지요.



병자호란은 인조보다 백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어요. 전쟁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짧았지만 청나라에 포로(捕虜)⁵⁾가 되어 끌려간 이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청나라에 끌려간 조선의 백성들은 돈을 낸 뒤 풀려나거나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병자호란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리를 지어 싸움 벌이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4. 내용 정리

중립 외교를 펼치던 광해군을 몰아 낸 후 왕위에 오른 인조는 명나라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청나라는 조선으로 쳐들어왔고,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1627년에 일어난 정묘호란은 조선과 청나라가 형제의 나라가 된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병자호란의 결과로 인조는 남한산성의 삼전도에서 청나라와 굴욕적인 강화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청나라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March First Movement

March First Movement, also called **Samil Independence Movement**, series of demonstrations for Korean national independence from Japan that began on March 1, 1919, in the Korean capital city of Seoul and soon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Before the Japanese finally suppressed the movement 12 months later, approximately 2,000,000 Koreans had participated in the more than 1,500 demonstrations. About 7,000 people were killed by the Japanese police and soldiers, and 16,000 were wounded; 715 private houses, 47 churches, and 2 school buildings were destroyed by fire. Approximately 46,000 people were arrested, of whom some 10,000 were tried and convicted.

The movement was begun by 33 Korean cultural and religious leaders who, after almost 10 years of Japanese rule, drew up a Korean "Proclamation of Independence" and then organized a mass demonstration in Seoul for March 1, 1919, their late emperor's commemoration day. On the appointed day, the 33 leaders, hoping to bring international pressure on Japan to end her colonial rule in Korea, signed and read their proclamation and had coconspirators read it in townships throughout the country. The suppressed anti-Japanese feelings of Koreans were released in one great explosion, and mass demonstrations took place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forming the largest national protest rallies against foreign domination in Korean history.

Though the movement failed to bring about its paramount goal of national independence, it was significant in strengthening national unity, leading to the birth in Shanghai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q.v.*), and drawing worldwide attention. Finally, the failure of the March First Movement greatly enhanced the rise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Today, March 1 is a national holiday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CITATION INFORMATION

ARTICLE TITLE: March First Movement

WEBSITE NAME: Encyclopaedia Britannica

PUBLISHER: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DATE PUBLISHED: 22 February 2019

URL: <https://www.britannica.com/event/March-First-Movement>

ACCESS DATE: February 22, 2019

천재학습백과 초등 스토리텔링 한국사

3·1 운동과 대한 민국 임시 정부

교과과정 초등학교 > 6학년 > 1학기 > 사회 6-1 >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 1)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

목차

1. 온 국민이 하나된 3·1 운동
2. 대한 민국 임시 정부
3. 내용 정리

1. 온 국민이 하나된 3·1 운동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¹⁾'를 내세웠어요. 민족 자결주의란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든 독립을 바라면 독립을 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 일본에 있는 조선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도쿄의 기독교 청년 회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宣言書)²⁾를 발표했어요. 선언문을 발표한 유학생들은 일제히 태극기를 꺼내 들고 거리로 뛰어나갔어요.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유학생들이 외치는 만세 소리는 일본 중심부인 도쿄 하늘에 찌렁찌렁 울렸어요. 한편 국내에서도 온 민족이 독립 운동에 참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종교 단체와 학생들이 힘을 합쳐 3월 1일 전국적인 민족 운동을 하기로 했지요. 마침내 3월 1일이 되었어요. 민족 대표 33인 중 29명이 종로 태화관에 모여 독립 선언서를 읽었어요.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주인임을 선언하노라!”



※ 잠깐 퀴즈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주인인 것을 선언'한 내용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 : 독립 선언서

일본의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민족이 들고 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민족 대표 33인은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있는 탑골 공원으로 가지 못한 채, 출동한 일본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한편 탑골 공원에는 수천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약속한 시간에 민족 대표들이 나타나지 않자, 한 학생이 단 위로 뛰어 올라가 독립 선언서를 펴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낭독(朗讀)³⁾했어요. 낭독이 끝나자 학생과 시민들은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며 소리 높여 외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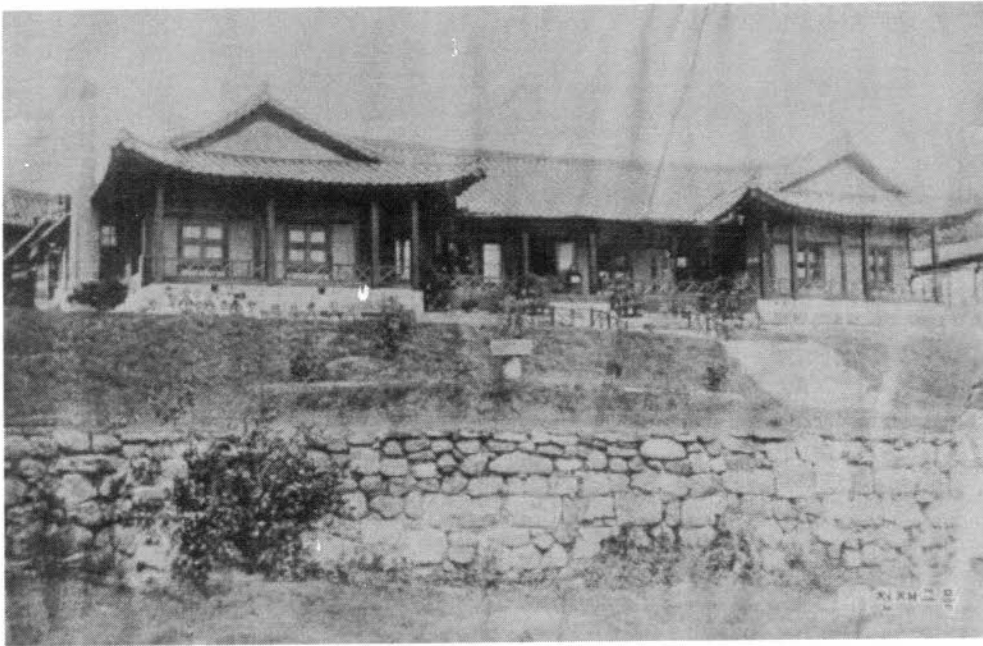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그 당시 경성(서울)에는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 있어 지방에 있던 시민들이 올라와 있었지요. 탑골 공원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에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왔던 시민까지 합류(合流)⁴⁾해 커다란 만세의 물결을 이루었어요. 어느 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하늘이 떠나갈 듯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만세 운동의 불꽃은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갔어요. 큰 마을이건 작은 마을이건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태극기의 물결이 출렁거렸어요.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조선이 독립된 것처럼 기뻐했어요.



하지만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만세 운동 물결을 일본 헌병과 군대가 가로막았어요. 손에 태극기만 든 국민들에게 일본 군대는 총을 쏘고, 총칼을 휘두르며 평화로운 시위를 잔인하게 짓밟았어요. 일본군들은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조선 사람들을 처참하게⁵⁾ 죽이고 감옥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나 이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소녀가 있었어요. 바로 이화 학당에 다니던 유관순이었지요.



이화 학당

이화 학당은 우리 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으로, 1886년 미국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 창설했다.

유관순은 경성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만세 운동에 참여했어요. 목이 터져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지요. 이런 혼란 속에 학교가 문을 닫자, 곧장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경성에서 일고 있는 만세 운동에 대해 알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유관순과 함께 만세 운동을 벌이기로 했지요. 유관순은 장터에 모인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며 힘있게 외쳤어요.

“왜놈들이 우리 나라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우리 모두 독립 만세를 불러 빼앗긴 나라를 되찾읍시다!”



유관순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유관순은 앞장서 나아갔어요. 일본 헌병들과 군대들이 막아섰지만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지요. 백성들은 일본 헌병과 군대를 뚫고 나아가려다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총칼 앞에 하나둘 죽어 갔어요.

유관순도 헌병에게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한 뒤 재판에 넘겨졌어요. 하지만 유관순은 재판을 거부(拒否)⁶⁾했어요. 총칼로 우리 나라를 빼앗은 일본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한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유관순은 감옥에서도 늘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대한 독립의 의지는 감옥에서도 꺾이지 않았지요.



유관순 열사상

충청 남도 천안시에 있는 유관순 유적 가운데 하나이다.

〈태극기는 언제부터 사용했나?〉

조선이 개항(開港)⁷⁾할 무렵에는 국기가 없었어요. 당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국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시로 태극 도형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 사용해오던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 파랑으로 그려 넣고 가장자리에 8괘를 그린 것이지요. 그러다가 1882년에 박영효가 일본 사신으로 가던 배 안에서 태극 도형기를 변형하여 8괘 대신 4괘를 그려 넣은 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태극기를 박영효가 외국에서 처음 국기로 사용한 것이지요.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태극기를 대한 제국의 국기로 정했어요.

2. 대한 민국 임시 정부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 운동은 4월 말까지 각 지역의 도시를 비롯해 작은 마을까지 이어졌어요. 국내뿐 아니라 만주, 연해주, 미국 등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은 일본의 잔인한 탄압(彈壓)⁸⁾과 학살(虐殺)⁹⁾을 폭로하는 행사를 열었지요.

3·1 운동으로 힘을 얻은 독립 운동가들은 임시 정부를 세우기로 했어요. 나라 안과 밖에 흩어져 있는 독립 운동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더욱 힘있게 펼쳐 나가기 위해서였지요.

독립 운동가들은 중국 상하이로 속속 모여들었어요. 드디어 1919년에 중국 상하이에 대한 민국 임시 정부가 세워졌어요. 이 때 나라 이름을 대한 제국에서 '대한 민국'으로 바꾸었지요.

임시 정부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독립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독립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었어요.

※ 잠깐 퀴즈

3·1 운동 이후 백성들에게 독립 정부가 필요하다고 느낀 독립 운동가들이 중국 상하이에 세운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 : 대한 민국 임시 정부

3. 내용 정리

미국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독립을 바라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하나 되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3·1 만세 운동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화 학당 고등 1학년이던 유관순도 3·1 운동 뒤, 고향인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다 잡혀 갔습니다. 결국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1 운동으로 인해 나라 밖에서 활동하던 독립 운동가들이 중국 상하이에 모여 대한 민국 임시 정부를 세웠습니다. 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우리 민족이 독립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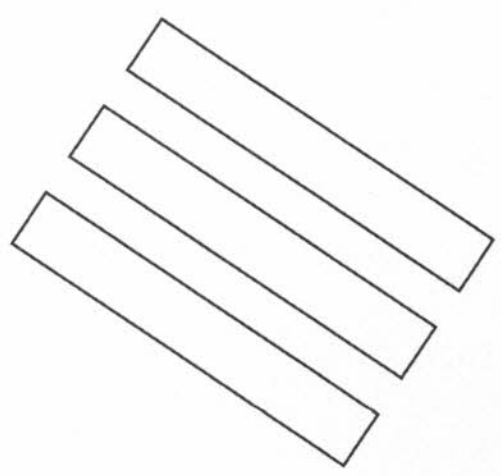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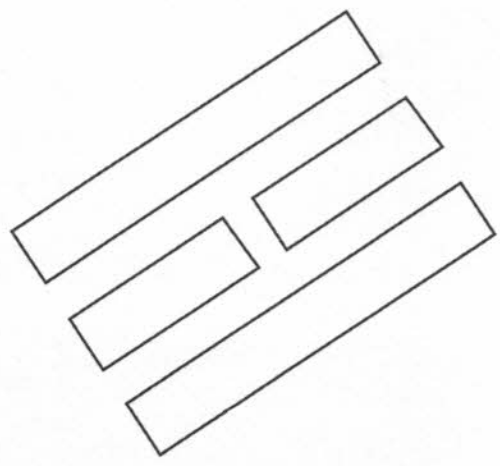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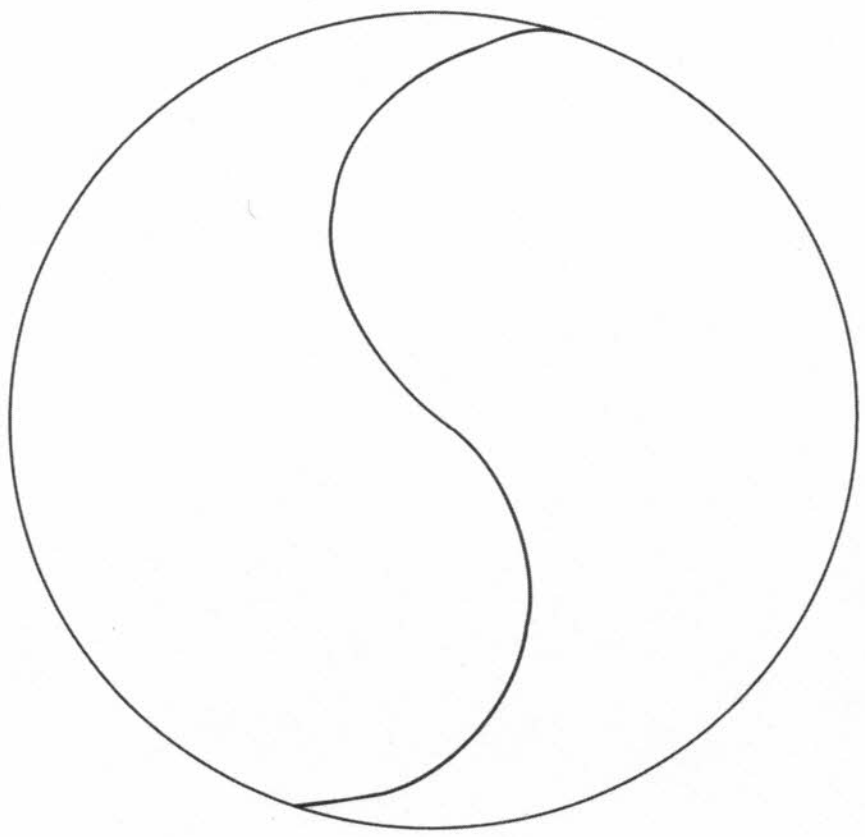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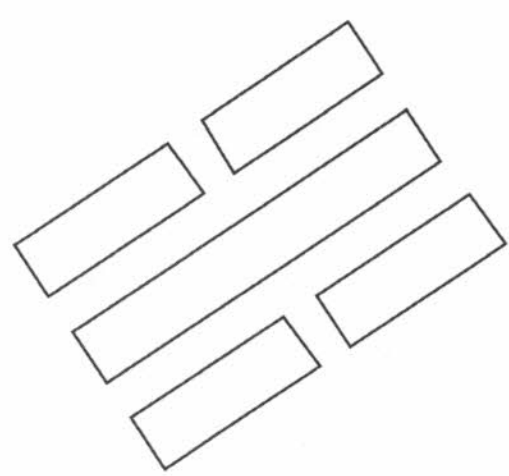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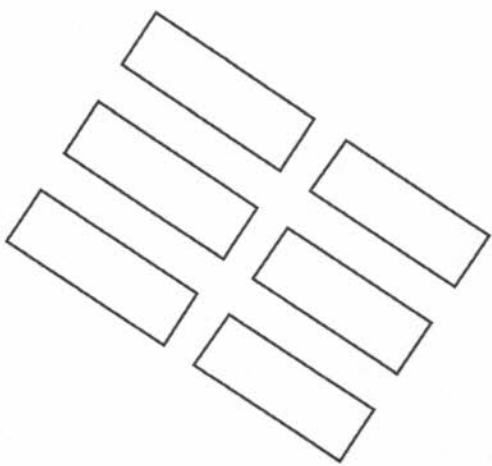


출처

천재학습백과 초등 스토리텔링 한국사 <http://koc.chunjae.co.kr/main.do>

제공처 천재교육 <http://www.chunjae.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흥부전

1. 작품 소개

〈흥부와 놀부〉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옛이야기예요. 착한 동생 흥부와 욕심 많고 심술궂은 형 놀부가 있는데, 흥부는 다친 제비 다리를 고쳐서 복을 받고 형은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지요.

〈흥부전〉은 다른 옛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작가가 누구인지, 언제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디선가 시작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보태지고 다듬어져 만들어진 것이지요.

〈흥부전〉은 착하고 나쁜 형제가 나오는 옛이야기나 동물이 사람에게 은혜를 갚은 이야기, 어떤 물건에서 재물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 등이 섞여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중 〈흥부전〉의 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옛이야기로 〈방이 설화〉와 〈박 타는 처녀〉를 꼽을 수 있어요.

〈방이 설화〉는 〈흥부전〉과는 반대로 동생이 심술궂고 형이 착해요. 착한 형은 복을 받고 형을 괴롭힌 나쁜 동생은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박 타는 처녀〉는 몽골의 옛 이야기로, 어느 착한 처녀가 제비의 다친 다리를 고쳐 주어 제비가 다음 해에 박씨를 몰아다 주었는데 그 안에 온갖 보물이 나와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흥부전〉을 읽고 나서 비슷한 옛이야기를 찾아서 읽어 보는 것도 이야기를 재미있게 감상하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1)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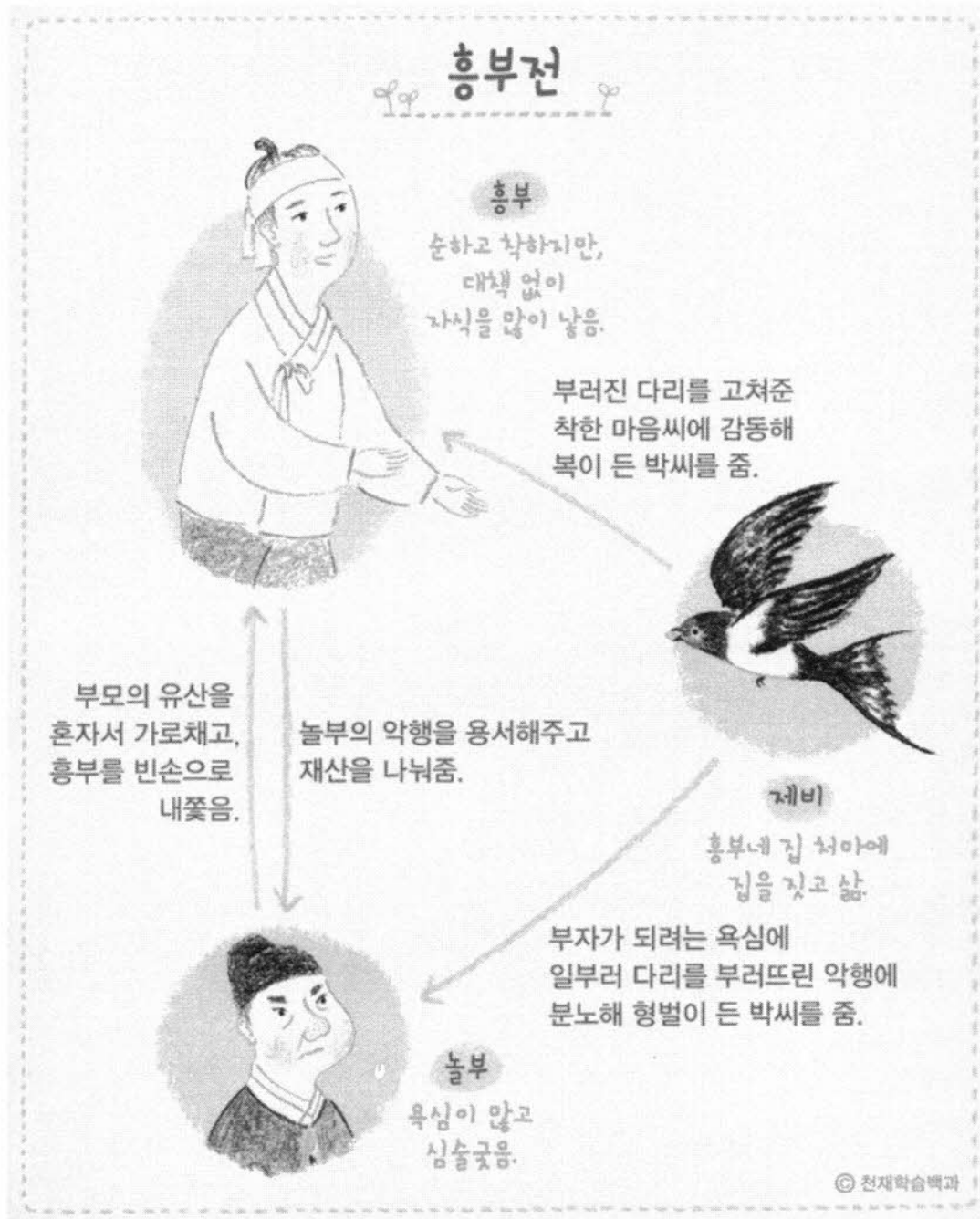
- 갈래 : 고전 소설, 판소리계 소설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 시간 - 조선 | 공간 - 전라도 어느 고을
- 주제 :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 특징 : 판소리를 소설로 만들.

2) 등장인물

- **흥부**: 제때 끼니를 못 이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순하고 착해요. 하지만 대책 없이 자식을 많이 낳는 등 무능하고 게으른 면도 있어요. 다친 제비 다리를 고쳐 주고 복을 받지요.
- **흥부 부인**: 흥부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가난을 견뎌요. 가난한 팔자를 탓하기도 하지만 착하게 살아요.

· **제비:** 홍부네 집 처마에 집을 짓고 살다가 구렁이 때문에 다리가 부러져요. 홍부의 도움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지요.

· **놀부:** 홍부의 형으로 욕심이 많고 심술궂어요. 부모의 유산을 혼자서 가로채고 홍부를 빈손으로 내쫓아요.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홍부를 따라 해 보지만 오히려 벌을 받아요.



3) 줄거리

놀부, 흥부를 집에서 내쫓고 집과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다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다. 동생 흥부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곱고 착했지만, 형인 놀부는 제 욕심만 차릴 줄 아는 인물이었다. 놀부는 남을 돕느라 정작 자신은 챙기지 못하는 흥부를 한심하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흥부를 집에서 쫓아버리고 집과 재산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흥부

굶주림에 시달리던 홍부, 놀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매를 얻어 맞다

집에서 쫓겨난 홍부는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했지만 스물 아홉 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제대로 먹여 살릴 만큼의 돈을 벌지는 못했다.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식구들을 보던 홍부는 죄 지은 이를 대신해 매를 맞아주고 돈을 받는 ‘매품’을 하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홍부 차례가 오지 않았다.

고민에 고민을 하던 홍부는 놀부의 집으로 가 약간의 식량이라도 달라고 청한다. 그러나 놀부는 홍부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며 오히려 매를 때린다. 놀부의 아내 역시 밥주걱으로 홍부의 뺨을 친다.

제비를 구해준 홍부의 선행에 감동한 제비왕이 박씨를 내리다

그렇게 가난과 놀부의 등쌀 때문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홍부네 집 처마에 제비 가족이 둥지를 튼다. 마음씨 착한 홍부는 제비 가족을 내쫓지 않고 지켜본다. 어느 날, 무서운 구렁이가 제비 가족을 위협하자 홍부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구렁이를 쫓아준다.

그리고 다리가 부러진 새끼 제비를 정성껏 보살펴준다. 홍부가 보살펴준 제비는 가을이 되자 원래 살던 강남으로 돌아간다. 강남으로 간 제비는 제비왕에게 착한 홍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홍부의 행동에 감동한 제비왕은 ‘보은표’라는 박씨를 홍부네 집에 전해주라고 제비에게 명한다.



제비

박씨 때문에 부자가 된 홍부를 질투하던 놀부,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다

제비왕으로부터 박씨를 받은 제비는 홍부의 집으로 돌아가 박씨를 전해준다. 전해 받은 박씨를 뒤뜰에 심어 잘 기른 홍부는 가을 쭈메 박을 탄다. 그러자 그 안에서 온갖 보물과 돈, 쌀, 귀한 약재, 비단 등이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와 으리으리한 기와집까지 지어준다.

순식간에 부자가 된 홍부를 질투하던 놀부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제비들을 자신의 집 쪽으로 몰아온다. 그 노력의 결과로 놀부의 집 처마에도 제비 가족이 둥지를 틀게 된다.

그러나 홍부네 집에서처럼 구렁이가 나타나거나 제비들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자, 놀부는 일부러 제비들을 떨어뜨리고 다리를 분지른 후 대충 치료해준다. 놀부로 인해 다리가 부러진 제비는 가을이 되어 강남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제비왕에게 알린다. 놀부의 악행에 화가 난 제비왕은 박씨 하나를 제비에게 주며 놀부에게 전해주라고 한다.



놀부

놀부네 박씨 안에서 무서운 장군이 나와 놀부를 혼내준다

제비왕의 명을 받은 제비는 놀부네 집에 박씨를 떨어뜨렸고, 놀부의 집에도 탐스러운 박이 여러 개 열리게 된다. 놀부는 자신도 홍부처럼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며 박을 탄다. 그러나 놀부네 박 안에는 빛을 받으러 왔다는 노인과 거지떼만 나왔고, 그들은 놀부의 재산을 몽땅 가져가버린다.

게다가 무서운 장군이 나와 놀부가 저지른 악행을 하나하나 읊으며 혼을 낸다. 무서움에 기절한 놀부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난 다음이었다.

놀부가 홍부에게 잘못을 빌고 홍부가 놀부를 용서해주어 사이 좋은 형제가 되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놀부는 홍부의 집으로 가 잘못을 빈다. 마음 넓은 홍부는 놀부를 용서해주고 그에게 자신의 재산 중 반을 떼어준다. 홍부의 심성에 감동한 놀부는 그 뒤로 새사람 되었고 다시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홍부와 놀부는 그 이후로 우애 좋은 형제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았다.

2. 감상 나누기

착한 홍부는 복을 받고 나쁜 놀부는 벌을 받는다는 홍부전. 동화책이나 이야기로도 많이 접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홍부전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식구들 먹일 음식이 없어 괴로워하던 홍부는 굶기야 죄인들이 맛을 매를 대신 맞아주고 돈을 받는 ‘매품’이라는 일을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서민들이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는 점과, 형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패한 사회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뿐인가요? 홍부전의 화자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계속 낳는 홍부 부부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풍자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의 모습과 홍부로 대표되는 우매한 자의 모습, 놀부로 대표할 수 있는 탐욕스러운 자 모두 홍부전이 비판하고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홍부가 대책도 없이 너무 많은 아이를 낳았다고 비판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3. 박의 생태

박은 덩굴을 치면서 자라는 풀이에요. 줄기와 잎 전체가 잔털로 덮여 있고 줄기가 변한 덩굴손이 있어서 다른 물건을 감고 올라가요. 여름에 흰 꽃이 피는데 저녁에 피었다가 아침 햇살이 나면 시드는 특징이 있어요.

가을에 덜 여문 박을 따서 속을 긁어 내어 나물을 무치거나 국을 끓여 먹어요. 박을 두 쪽으로 쪼갠 다음 말려서 바가지로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잠깐 퀴즈

글을 읽고 아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흥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매우 가난하다.
- ② 작은 짐승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긴다.
- ③ 원래 부인 말고 다른 부인이 또 있다.
- ④ 자식이 스물아홉 명이나 있다.

2.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를 가져다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① 흥부가 다친 다리를 치료해 주어서 은혜를 갚으려고

② 홍부 아내가 무쳐 주는 박 나물을 먹고 싶어서

③ 박으로 바가지를 만들어 거기에 등지를 틀기 위해서

④ 박 넝쿨로 홍부네 집 지붕을 튼튼하게 해 주려고

3.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나요?

① 강남표 ② 제비표 ③ 보온표 ④ 복수표

4. <홍부전>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 보면, 착하고 어진 홍부는 복을 받고, 욕심 많고 심술궂은 놀부는 벌을 받아요. <홍부전>의 결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고르세요.

① 권선징악 ② 아전인수 ③ 주마간산 ④ 주경야독

[네이버 지식백과] 홍부전 (천재학습백과 미리보는 중학 문학)

BTS UN Speech 9.24.2018

I'd like to begin by talking about myself. I was born in Ilsan, a city near Seoul, South Korea. It is a really beautiful place with a lake, hills, and even an annual flower festival. I spent a very happy childhood there, and I was just an ordinary boy. I used to look up at the night sky and wonder, and I used to dream the dreams of a boy. I used to imagine that I was a super hero who could save the world. In an intro to one of our early albums, there's a line that says, 'My heart stopped when I was maybe nine or ten.' Looking back, I think that's when I began to worry about what other people thought of me, and started seeing myself through their eyes. I stopped looking up at the night skies, the stars. I stopped daydreaming. Instead, I just tried to jam myself into the molds that other people made. Soon, I began to shut out my own voice, and started to listen to the voices of others. No one called out my name, and neither did I. My heart stopped, and my eyes closed shut. So, like this, I, we, all lost our names. We became like ghosts.

But I had one sensory, and that was music. There was a small voice inside of me that said, 'Wake up, man, and listen to yourself.' But it took me a long time to hear music calling my real name. Even after making the decision to join BTS, there were a lot of hurdles. Some people may not believe, but most people thought we were hopeless. Sometimes I just wanted to quit. But I think I was very lucky that I didn't give it all up. And I'm sure that I, and we, will keep stumbling and falling like this. BTS has become artists performing in those huge stadiums and selling millions of albums right now, but I am still an ordinary 24-year-old guy. If there's anything that I achieved, it was only possible that I have my other BTS members right by my side, and because of the love and support that our ARMY fans all over the world make for us. And maybe I made a mistake yesterday, but yesterday's me is still me. Today, I am who I am with all of my faults and my mistakes. Tomorrow, I might be a tiny bit wiser, and that'll be me too. These faults and mistakes are what I am, making up the brightest stars in the constellation of my life. I have come to love myself for who I am, for who I was, and for who I hope to become.

I'd like to say one last thing: After releasing our *Love Yourself* albums and launching the 'Love Myself' campaign, we started to hear remarkable stories from our fans all over the

world. How our message helped them overcome their hardships in life and start loving themselves. Those stories constantly remind us of our responsibility. So let's take all one more step.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I'd like to ask all of you, What is your name?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Tell me your story. I want to hear your voice, and I want to hear your conviction.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I'm Kim Nam-joon, and also RM of BTS. I am an idol, and I am an artist from a small town in Korea. Like most people, I've made many and plenty mistakes in my life. I have many faults, and I have many more fears, but I'm going to embrace myself as hard as I can,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gradually, just little by little.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Thank you very much.